

옛사람의 지혜에 달아났던 마음이 돌아온다



‘일침’ 정민지음

옛날 소현령(蕭顯令)이 선인(仙人) 부구옹(浮丘翁)에게 고을 다스리는 방법을 물었다. “내게 여섯 자로 된 비결이 있네. 사흘간 재계(齋戒)하

고 오면 알려 주지.”해 사흘 뒤에 찾아가니 세 글자를 알려 주었다. 모두 ‘열(廉)자다. “정령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는 재물에, 하나는 여색(女色)에, 나머지 하나는 직위에 적용해 보게.” “나머지 세 글자는 무엇입니까?”, “다시 사흘간 재계하고 오게나.”사흘 뒤에 다시 갔다. “정말 듣고 싶은가? 나머지 세 글자도 열, 열, 열일세.” “정말 정령이 그다지도 중요합니까?”, “자네 거기 없게. 청렴해야 밝아지네. 사물이 실정을 숨길 수 없게 되지. 청렴해야 위엄이 생기는 법. 백성들이 명을 따르게 된다네. 청렴해야 강직할 수 있네. 상관이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되지. 이래도 부족합니까?” 현령이 벌떡 일어나 두 번 절하고 허리에 열 자를 여섯 개 써서 즉시 길을 떠났다.

다산(茶山) 정약용이 벗의 아들인 영암 군수 이종영(李鍾英)에게 쓴 글이다. 정민 한양대 국문과 교수는 청렴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야기를 통해 ‘육자비결’(六字秘訣), ‘벽술길에 임하는 여섯 글자의 비결’을 전한다.

‘일침’이라는 책을 읽다 보니 최근 광주·전남 지역 주요 이슈가 문득 떠오른다.

13명의 공무원·교수·업체 관계자가 구속됐고 검찰의 기소 규모가 3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연일 터지는 광주시 총인거점사실 압박

리사건이 먼저 떠오르고 전남도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가 낮고 부패 방지 노력도 미흡하다거나 보조금을 횡령한 공무원이 적발됐다는 뉴스도 연일 스쳐간다.

모든 게 그렇다.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마다 옛사람의 고민과 지혜에 뜨끔할 정도다. 옛 글에 비춰보는 저자의 요즘 세대 비평도 시원스럽다.

저자는 모두 100개의 4자성어를 ‘마음의 표정’, ‘공부의 칼끝’, ‘진장의 탄식’, ‘통치의 묘법’ 등 주제별로 분류해 엮었다. 사서삼경부터 조선 조 문집까지 다양한 옛 글과 사례를 풍부하게 찾아내 집어넣었다.

홍선과 대선 등 ‘뜨거운 정치 드라마’가 펼쳐지는 이 때, 자녀를 위한다면 밤 늦게까지 학원 ‘뿔뿔이’를 돌리고 학교 친구를 괴롭히고 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지는 현실에서 새겨볼만한 글이 적지 않다.

온갖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후보간 비방이 끊이지 않는 정치판을 보면서 ‘취문성뢰’(藜蚊成雷), 모기 소리가 모여 우레가 된다는 ‘한서’ ‘중산정왕전’의 대목을 인용, 풍문에 현혹되어 판단을 흐려서는 안 된다는 지혜를 전하고 ‘송천필담’ 중 ‘필패지가’(必敗之家·틀림없이 망하게 되는 집안)의 7가지 사례를 엮어 리더로서의 자질을 소개하기도 한다. “다른 사람이 자네를 누구의 사람이라고 손꼽아 말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되네”는 요즘 정치판에서 되새겨볼만한 말이다.

또 국정 난맥상을 보면서 ‘정신칠인’(靜臣七人), 바른말로 충언하는 신하 일곱만 있으면 천하를 잃지 않는다는 공자의 말도 눈길을 끈다.

‘교자이의(教子以義)’, ‘자식을 올바른 길로 가르치기’를 풀어 쓰면서 밤 좀 치우라고 했다고



강세황 '자화상'

20대 청년이 80대 노인에게 욕을 해대고 잘못을 저지른 자녀에게 혼을 냈다며 부모가 교사를 폭행한, ‘눈에 보이는 세상은’을 비판한다.

단계와 계통을 밝아 가르쳐야 ‘문심해무’(文心慧霧)가 열린다는, 글자 속에 깃든 뜻과 정신인 ‘문심’을 알고 ‘술기 구멍’인 ‘혜무’가 열려야 공부 머리가 갠다는 말을 들어 무조건 확언 많이 보냈지만 하면 당장 천재라도 될 것 같은 교육 세대를 비판다.

‘달아난 마음을 되돌리는 고전의 바늘 끝’이라는 부제가 나온 이유, ‘바늘 끝’ 같은 옛 글에 비춰 요즘 세대를 비평하는 글을 곱씹어보다 보면 짐작할 만하다.

〈김영사·1만4000원〉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티베트서 만난 ‘소녀’를 기억하며

‘꽃의 말을 듣다’

윤후명 지음



소설가 윤후명이 새 소설집 ‘꽃의 말을 듣다’로 돌아왔다.

작가에게 김동리문학상을 안겨줬던 ‘새의 말을 듣다’ 이후 5년만에 내놓은 소설집이다.

표제작 ‘꽃의 말을 듣다’는 티베트의 독립을 지지하는 행사에 참여하게 된 화자가 티베트 여행에서 만났던 한 ‘소녀’, 좌판을 벌여 놓고 여행자들을 기다리던 그 소녀에 대한 기억을 더듬으며 써내려간 글이다.

책에는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거타지 신화’에 언급된 ‘꽃’을 찾아 남쪽 바닷가로 떠난 여행을 그린 ‘꽃의 변신’, 협객열차의 흔적을 찾아가는 모임 이야기를 그

린 ‘희망’, 인사동 길가 좌판에서 불경을 발견하고 젊은 시절 미안마 전령사로 끌려갔던 은사와의 약속을 떠올리며 삶을 돌아본 ‘패업 속의 하루’ 등 모두 9편의 단편 소설이 실려 있다.

저자는 ‘작가의 말’에서 ‘삶이란 순수지향과 원형 회귀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곳에서 방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꽃’의 상징으로 대필했다’고 밝혔다.

화가이기도 한 윤사는 소설집 출간에 맞춰 소설과 동명의 제목으로 인사아트센터에서 첫번째 개인전도 열었다.

〈문화과 지성사·1만1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미래의 경제질서는 경쟁 아닌 분배

‘경쟁의 종말’

로버트 프랭크 지음



미래의 경제 질서란 경쟁이 아닌, ‘분배’에 있다는 것, 저자인 로버트 프랭크 코넬 경제학 교수가 ‘경쟁의 종말’을 통해 주장하는 핵심 코드다.

효율적 분배를 통해서만이 경제적 파이를 키우고, 부채를 줄이고, 더 나은 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한다. 왜 더 이상 경제 문제를 ‘보이지 않는 손’에만 맡겨둘 수 없는 지,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에서 ‘보이지 않는 손’을 맹신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다윈주의적 관점으로 설명한다. 효율적 분배는 어떻게 가능한 지도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

저자는 사슴의 뿔이 커질수록 각 개체의 번식 경쟁에서는 우위를 차지하게 되지만 숲에서 기동력이 떨어져 종족 전체의 생존에 커다란 위협으로 돌아오는 예

를 들며 무한 생존 경쟁이 반드시 집단 전체에 유익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 결코 아님을 역설한다. 신자유주의자들의 흔한 공격 대상인 ‘큰 정부’에 대한 저자의 다른 견해도 눈길을 끈다. 오직 정부만이 경제 불황 속에서 공공 프로젝트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낮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논리다.

오�히러 위기를 불러온 법인은 낭비를 일삼는 정부가 아니라 부유층서 시작된 ‘지출 연쇄작용’이라는 게 저자가 내린 진단이다.

저자는 이 과정에서 경쟁에서 분배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을 주장하면서 누진소비세의 도입, 저소득층에게 소득 이전, 타인에게 해를 가한 사람에게 과세하는 ‘피구세’ 도입 등을 제시한다.

〈웅진지식하우스·1만5000원〉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원하는 색을 얻기 위한 인간의 분투

‘THE COLOR’

안나 바리송 지음



흰색·노란색·빨간색·보라색·파란색·녹색·갈색과 검정색 등 7개 분야로 나뉘 갖가지 색이 나타내는 분위기나

사회적 지위, 종교적·정치적 의미, 개인적 취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 책을 추구해온 인류의 분투기를 접하면 현재 눈에 비치는 색의 느낌과 의미가 새로울 수밖에 없다.

〈이중·2만5000원〉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예술가들이 말하는 빈곤·계급·인종

‘하버드 문학 강의’

로버트 콜스 지음



지난 1975년 시작돼 20년 이상 하버드 대학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명강의 ‘하버드 문학 강의:문학의 사회적 성찰’이 책으로 묶여 나왔다. 저자 로버트 콜스는 ‘위기의 아이들’로 풀리처상을 받은 작가이자 하버드대 정신의학과, 의료 인문학과 교수를 지낸 인물이다.

책에는 제도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찰스 디킨스, 조지 오웰, 레이먼드 카버, 에드워드 호퍼 등 지난 2세기에 걸

쳐 활약한 위대한 작가와 예술가, 사상가들이 빈곤, 계급, 인종, 성차 뿐 아니라 신체적 능력이나 지역 차별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책 속에 등장하는 예술가들은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실제 삶과 작품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려 했고, 그들의 고단한 삶에서 길어올린 생생한 이야기들은 독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줬다.

〈이순·1만8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초의차의 흔적을 따라 떠난 인문학적 여행

‘맑은 차 적멸을 깨우네’

박동춘 지음



지금부터 30년전 무더운 여름, 한학을 공부하던 젊은 여성은 달랑 배낭 하나 메고 뿔뿔이 해남 백화사에 도착했다. 절을 지키던 89세의 응송 스님은 자신이 써놓은 ‘차(茶)’에 대한 원고를 현대식으로 운문해줄 젊은이를 찾고 있었고, 그녀는 원고를 읽으며 ‘초의선사’를 알게 됐다.

그녀, 박동춘씨는 이어 스님으로부터 제다법과 차 이론을 배우고 ‘다도전계’를 받으며 ‘초의차’ 5대째 계보를 잇게 됐다.

박씨가 이번에 펴낸 ‘맑은 차 적멸을 깨우네’는 ‘다산과 추사가 사랑한 초의선사의 우리 차 기행’이라는

부제처럼 대흥사, 칠불암, 쌍봉사, 기암사 등 초의차의 흔적을 따라 떠난 인문학적 여행의 기록이자 문화사, 혹은 인연(因緣)사다.

다산초당에서 청년 시절의 초의에게 시학과 주역을 가르쳐준 정약용과 평생 초의를 후원한 다산의 아들들, 초의와 동갑내기로 평생 인연을 나누며 맑은 정신 세계를 교감했던 추사 김정희, 절창의 글로 초의차의 웅대한 경지를 묘사했던 박영보를 포함, 조선 후기의 지식인 등 다양한 인물들을 만날 수 있다.

박씨는 성균관대학교에서 유학을, 동국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했으며 제2회 화봉학술문화상을 수상했다.

〈동아시아·1만98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신간

▲신참자 = ‘비밀’로 일본추리작가협회상(1999년), ‘용의자 X의 헌신’으로 제134회 나오키상(2006년)을 받은 히가시노 게이고의 장편소설. TV드라마 시리즈로 제작된 뒤 일본 TBC TV에서 방영돼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소설은 도쿄 니혼바시의 한 아파트에서 홀로 살아가던 40대 이혼여성인 목쥬리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니혼바시 경찰에 새로 부임한 형사 가가 교이치로가 사건에 투입되면서 전개된다. 〈재인·1만4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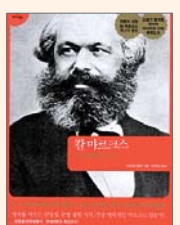


의 영향관계, 동아시아 민화의 보편성과 특수성 등을 두루 살폈다. 〈돌베개·3만3000원〉

▲나를 위한 하루 그림 =인터넷에서 아이디 ‘데스카페’로 그림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대중적 인기를 끌고 있는 선동기씨가 사계절에 어울리는 그림을 소개한 책. 매월, 계절감에 맞는 그림들을 골라 소개한다. 봄·여름·가을·겨울의 네 장으로 구성하고 달마다 10점씩 12점의 그림을 엮었다. 블라디미르 예고로비치 마콥스키의 ‘바실리오펀의 스케치’ 등 5월 민중 항쟁을 떠올릴만한 그림들도 함께 넣었다. 〈아트북스·1만5000원〉



▲오에 겐자부로, 작가 자신을 말한다 =소설 ‘만년원년의 꽃밭’(1994년)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오에 겐자부로의 대담집으로, 작가생활 50주년을 맞아 그의 어린 시절 이야기, 작품에 담긴 철학, 소설론, 살아온 시대에 대한 통찰 등 오에의 ‘모든 것’을 담았다. 〈문화과 지성사·1만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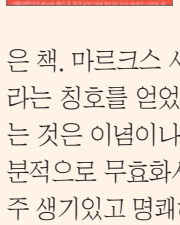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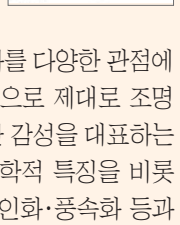


▲칼 마르크스, 그의 생애와 시대 =2001년 초판에 이은 개정판으로, 지난 1997년 작고한 라트비아 출신의 지성사개인 이샤야벌린이 엮은 책. 마르크스 사상에 대한 입문서이면서 ‘가장 지적인 대학원’이라는 칭호를 얻었던 작가에 대한 입문서이기도 하다. 세계를 바꾸는 것은 이념이나 사상이 아니라 물질적 힘이라는 자기 이론을 부분적으로 무효화시킨 역할을 구현한 마르크스의 인물과 사상이 아주 생기고 명쾌하게 요약되어 있다. 〈미디스북스·1만3800원〉

▲정조와 흥대왕, 생각을 겨룬다 =한양대 대학원에서 ‘흥대왕 사상의 연구’라는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김도현이 정조와 흥대왕의 300일 동안의 문답을 기록한 ‘계방일기’를 완역한 책. ‘계방일기’는 정조가 즉위하기 전 서인(書筵·왕세자의 공부)을 담당했던 흥대왕이 1774년(영조 50) 12월부터 1775년(영조 51) 8월까지 약 300일 동안 정조와 나눈 문답을 기록한 책이다. 〈책세상·1만5000원〉

▲민화, 가장 대중적인 그리고 한국적인 =풍속사적인 측면에서 다루졌을 뿐 궁중회화나 문인화에 미치지 못하는 회화 장르로 폄하된 민화를 다양한 관점에서 조망한 책. 저자인 정병호는 편협한 엘리트층으로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는 서민회화인 민화를 ‘한국의 진박한 감성을 대표하는 회화’로 보고, 개념과 역사·민화의 장르 분류·미학적 특징을 비롯해 그림에 반영된 종교·이념적 측면, 궁중회화·문인화·풍속화 등과

마타 예술의 세계,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실어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오토마타 예술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길벗어린이·1만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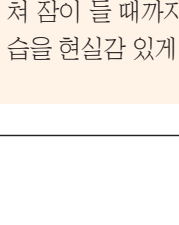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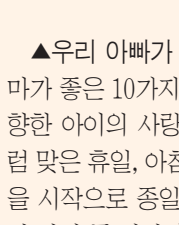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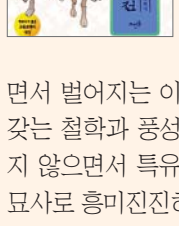


▲노빈슨 사기, 맹상군열전 =노빈슨의 동양 고전시리즈의 첫번째로, 사마천의 ‘사기’ 중 ‘맹상군열전’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각색한 책이다. 주인공 ‘노빈슨’이 춘추전국시대의 맹상군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책에 담았다. 원전이 갖는 철학과 풍성한 이야기, 진정성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특유의 유머와 재기 발랄한 상황 묘사로 흥미진진하게 읽을 수 있다. 〈뜨인돌출판사·1만1000원〉



어린이 책꽂이

마타 예술의 세계,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실어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오토마타 예술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길벗어린이·1만2000원〉



▲노빈슨 사기 1, 맹상군열전 =노빈슨의 동양 고전시리즈의 첫번째로, 사마천의 ‘사기’ 중 ‘맹상군열전’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각색한 책이다. 주인공 ‘노빈슨’이 춘추전국시대의 맹상군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책에 담았다. 원전이 갖는 철학과 풍성한 이야기, 진정성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특유의 유머와 재기 발랄한 상황 묘사로 흥미진진하게 읽을 수 있다. 〈뜨인돌출판사·1만1000원〉

▲우리 아버지가 좋은 10가지 이유 =‘우리 엄마가 좋은 10가지 이유’의 속편격으로, 아빠를 향한 아이의 사랑을 유쾌하게 풀어냈다. 모처럼 맞은 휴일, 아침에 일어나 장난을 치는 모습을 시작으로 종일 아이와 노느라 피곤함에 지쳐 잠이 들 때까지 아빠와 아이가 함께하는 모습을 현실감 있게 그렸다. 〈아이시세·9500원〉